

6월엔 한국독립영화 매력에 빠지세요

광주극장 한달간 '한국독립영화' 기획전
사회적 이슈·청춘과 성장 등 키워드
'낮아웃' '까치밭' '청춘선거' 등 8편 상영
감독·배우 만나는 '썸머 로드쇼' 진행도



광주극장은 6월 한 달 동안 기획전 '한국독립영화 조금 더 가까이'를 개최한다. 사진은 '메이드 인 루프탑' 스틸컷.

여름이 시작되는 6월, 한국독립영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극장은 6월 한 달 동안 '낮아웃', '까치밭', '청춘 선거'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독립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획전 '한국독립영화 조금 더 가까이'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사회적 이슈, 가족 드라마, 청춘과 성장 등 다양한 키워드를 주제로 한 독립영화 8편을 상영하며, 영화 감독과 배우를 만날 수 있는 '썸머 로드쇼' 및 부대행사 등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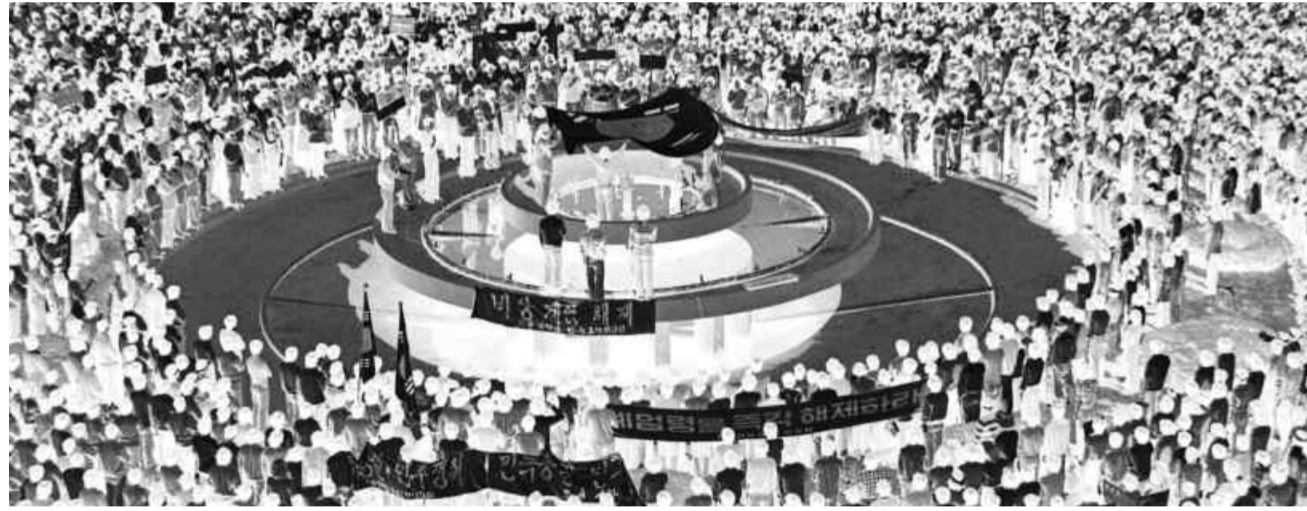
3일 개봉하는 '낮아웃'은 프로야구 드래프트 선발에서 탈락한 고교 야구부 유망주 '광호'가 야구를 계속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를 위해 25kg 가량 체중을 늘리고 실제 야구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에 매진하며 캐릭터를 완성시킨 정재광은 '광호'를 심도있게 표현하며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배우상을 수상했다. 꿈을 좇는 위대로운 열아홉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그린 이정근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인다.

같은날 개봉하는 '까치밭'은 딸의 까치밭이 뇌성마비의 징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권우정 감독의 불안과 고뇌를 솔직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영화 '동글고 동글게' (9일)는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한국영상자료원이 기획하고 장민승 감독과 정재일 음악감독이 협업한 공연영상 프로젝트다. 5·18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한국 사회가 지나온 역사의 변곡점을 사진과 영상, 음악을 활용해 극장이라는 시공간에 재배치함으로써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되돌아본다.

개봉 11일 만에 1만 관객을 돌파한 흥성은 감독의 '혼자 사는 사람들'은 10일부터 16일까지 4회 특별상영된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출신인 홍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다양한 1인 가구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세밀하게 묘사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주연을 맡은 공승연은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전쟁 부문에서 배우상을 수상했다.

'클라이밍' (16일)은 세계 클라이밍 대회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약물에 시달리던 '세현'이 또 다른 자신으로부터



'동글고 동글게'

전화를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공포 애니메이션이다. 작품은 제22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제45회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영화 '청춘 선거' (17일)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정치 경험이 전무한 만 32살 제주 이주민 여성 청년 고은영의 좌충우돌 선거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다. 고은영 후보를 중심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를 바 없는 현실 정치의 벽을 깨기 위해 분투하는 선거 캠프 활동가들의 유패한 도전을 그린다.

영화 '우리는 매일매일' (17일)은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이어

가며, 보다 나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위해 페미니즘 다이아리를 함께 쓰자고 제안하는 본격 페미니즘 다큐멘터리이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의 생생한 고민과 세상을 향한 다양한 시선을 담았다.

이 밖에도 김조광수 감독과 '자이언트 팽TV'의 염문경 작가가 협업으로 완성한 영화 '메이드 인 루프탑'의 로드쇼가 5일 오후 5시 광주극장에서 펼쳐진다. 작품은 '하늘'과 '봉식'이 각자의 방식대로 연애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로드쇼는 오는 24일 정식 개봉에 앞서 열리며 김조광수 감독과 염문경 작가, 이흥내, 정후 배우가 참석해 관객과 만난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극단 민에 초청 5일 토요일상설무대

매주 다양한 장르의 국악공연을 선보여 온 국립남도국악원이 극단 민에를 초청해 무대를 꾸민다.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상설 '국악이 좋다' 공연이 오는 5일 오후 5시에 열리며, 극단 민에가 '꽃신-구절초'를 선보인다.

극단 민에는 1973년 창단해 연극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민족 전통예술의 현대적 조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선보일 '꽃신-구절초'는 한국의 100년 역사 속에서 고통과 질곡을 견뎌낸 한 집안의 4대에 걸친 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동학농민운동, 독립운동, 6·25 전쟁, 민주화 운동 등 격변기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험난한 인생 여정과 강인한 힘을 보여준다. 경륜과 연륜이 묻어나는 배우들의 연기와 해금, 대금과 기타가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음악을 더 큰 감동을 전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객석 거리두기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으로 선착순 190명을 모집한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기존 노선(진도읍사무소 출발) 외에 새로운 노선(솔비치 진도 출발)을 추가해 관람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또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문의 061-540-40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허블, 한국과학문학상 공모

SF 브랜드 '허블'은 '스튜디오드래곤'과 함께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장편소설(200자 원고지 기준 600~1200매)과 중·단편(80~250매) 2개 부문이며 예비심과 본심을 거쳐 심사한다. 이번 공모전은 허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응모할 수 있으며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만 응모 가능하다. SF 공모전 입상 경력이 없고 SF를 온라인·오프라인 매체에 발표 또는 단행본으로 출간한지 2년 미만이면 기성작가도 참가할 수 있다. 마감은 오는 10월 31일.

결과는 오는 12월 허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금은 장편 대상 1편 2000만원, 중·단편 대상 1편 700만원, 우수상 1편 300만원, 가작 3편 각 100만원이다.

수상작은 허블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스튜디오드래곤에서 영상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02-757-972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양성평등교육강사 양성 과정 참가자 전남여성가족재단, 15일까지 모집

(재)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안경주)은 전남형 양성평등분야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7월14일부터 8월20일까지며 기본과정, 전문과정, 강의력 향상과정 등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위촉평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된다.

위촉평가 통과 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로 위촉 및 등재되며 도내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사로서 민간기업, 공공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신청은 전남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260-73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윤동주 모국어 의식과 언어철학 조명

시산맥 여름호...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진혜진 시 수록

광주일보와 함께 '동주문학상'을 제정한 '시산맥'이 여름호(46)를 펴냈다.

이번 호에는 기획특집으로 송용구 시인의 '생태언어학의 렌즈로 바라본 윤동주의 모국어 의식과 언어철학'을 게재했다. 송 시인은 언어의 파수꾼 윤동주의 시를 모국어 의식과 연계해 풀어냈다.

"시인 윤동주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향하는 '길'은 한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항거하는 길인 동시에 한국인의 모국어를 살려내는 길이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울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필생의 맹세를 따라 그가 걸어야 할 길은 침략자의 탄압에 의해 '죽어가는' 모국의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길인 동시에 한민족의 정신적 생명체인 모국어를 '최후'까지 지켜내는 길이다."

특히 이번 호에는 제11회 시산맥작품상을 수상한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진혜진 시인의 '방향을 랩소디'와 고(故) 김희준 시인의 '루루와 나나', 그리고 두 시인의 근작시가 수록돼 있어 작품세계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제1회 시산맥시문학상을 수상한 안은숙 시인의 '봄날의 리포트'를 비롯해 시산맥이 찾아가는 시인으로 한용국 시인의 '우리는 모여서, 꾸꾸꾸꾸' 등을 만난다.

해외시인 기획으로 오인정·김혜숙·윤석호·엄경재·김성교·김소희·이춘혜·김백현·문창국·이기봉 시인의 작품도 실려 있어, 외국에서 활발하게 모국어로 시를 쓰는 시인들의 시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제12회 시산맥작품상 후보작품인 '넷플릭스' (문정영), '고치는 사람' (박해람), '그림 없는 미술관' (주만현), '사월의 것을 그대로 두어오' (전수호), '포도도 말하네' (최현수)도 수록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